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회복
RECONCILIATION
"다시 하나 되다"
6.3~7.12
매일 새벽 4:45



하나님이 세우신 신천 장로들, 믿음과 충성으로 교회 섬길 것

5월 19일 주일 저녁 <장로취임예배> 열려,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어려운 때 힘을 더하는 장로들이 되겠습니다.”

지방회에서 성품통과 후 본교회에서 취임식
지난 5월 19일 주일 저녁 7시, 금년부터 새롭게 소명을 받은 장로 10명의 취임예배가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번에 취임한 장로들은 지난해 말 당회에서 입교인 성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았으며, 이어 지방회에서 성품통과 후 장로증서를 받고 본교회에서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이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예배에서 갈릴리성가대는 찬양 '축복'을 불렀으며, 서울연회 제17대 감독을 역임한 김영

현 감독이 설교를 전했다. 김 감독은 '겸손과 섬김과 영광'(벧전 5:1-5)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첫째, 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밖으로 비전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둘째,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셋째, 뒤를 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했다. 아울러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장로 취임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장로들에 대한 문답과 시내산 들로 만든 장로장립반지와 취임패 증정을 했으며, 도준순 감독의 축사와 이기우 목사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다.
취임 장로들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한 김두원 장로는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요, 믿

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어려운 때 힘을 더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김선도 감독님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취임한 김일환 장로를 축복하기 위해 참석한 박명구 권사(남성성가단원, 7교구)는 "김 장로님은 그동안 남성성가단 총무를 비롯해 10여 년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단원들을 잘 알고 있다. 김 장로님은 소통에 적극적이고 겸손하며 80여 명에 이르는

단원들을 성실하게 챙기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 늘 본을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칭찬했다.
이번에 취임한 장로들은 권정숙(남교회 교육), 김두원(미가엘성가대장), 김일환(남성성가단장), 김진섭(유아교육), 김홍철(남교회 음악), 서명관(성극, 중국어예배), 양상식(남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장), 한상국(새가족위원회), 이기식(군선교위원장), 장준규(나사렛성가대장) 등 총 10명이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구원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연단을 넘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1~6)

여러분, 기독교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허물이 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가 많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다 여기시면, 의로운 성품과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 과거의 모든 잘못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잘못도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자녀로 바꿔주시며 미래를 보장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삼분의 일이 병 고치는 치유사역입니다. 병 고칠 때마다 예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 5:1~6

1.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영어의 ‘Peace’의 개념이 아닙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말고도 풍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풍부한 소득을 얻어도 샬롬! 목축업이 잘 돼서 소와 양떼가 많아지는 것도 샬롬!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풍요를 누렸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때를 ‘샬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평화에 감사하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직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온전함의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원수가 사라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넘어서서 하나 됨을 이루는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둘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시제를 가만히 보면 과거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보아도 감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록>에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환난과 낙심과 절망에 휩싸이지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환란을 이겨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삶의 목표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14년이나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1년에 10가정씩 10년 동안 140가정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주지사에 입후보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악수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교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의 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걸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30

<제 31회 호렙산 기도회> 회복 - 다시 하나 되다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새벽 4시 45분 본당 대예배실과 지교회에서



진정한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에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6월이 되면 광림교회 성도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기다리며 내 안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또 물으며 기도 제목을 적는다.

198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1회를 맞는 호렙산 기도회는 '회복(RECONCILIATION) - 다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6월 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40일간 매일 새벽 4시 45분, 광림교회 대예배실과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제 말씀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편 147:3)

이다.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회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로 날마다 영적 생수를 공급받으며 성령의 재충전으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다.

성도들은 공동기도 제목을 나누며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광림교회와 세계 선교지, 교회 기관과 부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인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는 화해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원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상심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는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춰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 에스라서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과 사회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했다.

해외 2만여 명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호렙산 기도회는 매년 같은 시간 전 세계 98개국에 흩어져 있는 광림교회 2만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한다. 인터넷방송과 광림교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벽기도회 실황이 중계되므로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광림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며, 위로와 살림의 축복인 호렙산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shlh616@naver.com

포토 뉴스



장로회, 어버이주일 기념 사은회
5월 12일, 장로회에서는 김선도 감독님 내외를 모시고 사은회를 열었다.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회
5월 22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회가 광림교회 베델성전에서 열렸다.



English Bible Class 10주년 기념예배
5월 19일 광림사회봉사관 4층에서 EBC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어버이주일 음악예배>, 남성성가단이 부른 은혜의 찬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자리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잠언 23:25) 지난 5월 12일 주일 저녁 7시 30분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남성성가단이 주최하는 <2019 어버이주일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감사,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특별히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입장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깊었고, 이현두 권사의 색소폰 연주는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곡조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

다. 한편, 박창석 지휘자의 독창 <주의 기도>와 사랑나눔중찬단의 참여는 몽클함을 자아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어머니 은혜> 3절에서는 모두 기립해 한마음으로 함께 열창했다. 우리 삶의 고백이요, 나오미(뜻: 나의 기쁨)의 기도 같은 남성성가단의 맑고 우렁찬 찬양은 밤하늘에 떨리,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 깊이를 울려 퍼졌다.

지휘자 박창석 집사는 "단원들이 가사를 암보하기 위해 카톡으로 서로 나눈 분들도 있

고, 두세 달 동안 릴레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은실 집사(4교구)는 "어버이주일을 맞아 남성성가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권사(30교구)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5월, 남성성가단의 찬양을 통해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흔드는 힘찬 찬양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생각나게 한 경건하고 아름다운 오프닝 '승리의 찬가'는 지금도 귀에 들리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성성가단의 활동은 눈부시다. 1989년 9월 로잔세계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국내외 초청공연, 위문음악예배, 진중세례예식, 봉헌예배, 남성성가제, 찬양선교 및 CTS 기독교TV '내 영혼의 찬양' 협연을 했으며, 지금도 찬양 선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담임목사 동정



- 5/12 어버이주일 음악예배
- 5/13~18 미국 웨슬린신학교 이사회
- 5/19 장로취임예배
- 5/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중강
- 5/22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임원회
- 5/22~23 익투스 영성운동

감독 동정



- 5/12 어버이주일 음악예배
- 5/14 감독협의회
- 5/19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 5/19 장로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 가졌던 뜨겁던 열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마주하고 난 후 식어져 갔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아이들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낮아져만 갔고,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선명했던 아이들을 향한 구원의 확신 또한 빛바래져 갔습니다.

제 마음만 앞서갔기 때문이었을까요? 저의 판단과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아픔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감히 위로조차 할 수 없었던 큰 아픔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기도하려 손을 모을 때 그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나를 한 알의 밀알로 사용하시더라도 저 영혼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도 변하지 않은 상황과 현실에 힘든 때도 많았고 낙심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그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타이밍에 최선의 방법으로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을 손에서 놓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며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가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갈 때 저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 것이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저를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제게 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묵묵히 눈물로 한 알의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호수 성도(고등2부 교사)

<제4회 전교인 한마음 걷기대회> Walking with Jesus

실업인선교회 주관으로, 5월 11일(토) 한강 잠실청소년광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개회예배 말씀을 전하는 김정석 담임목사



새가족 환영



3대가족 완주팀

몸과 마음 힐링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운 행사

결식아동과 청소년 한부모가정돕기 위해 4천만 원 후원금 전달



한마음 걷기대회 출발선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에 후원금 2천만 원 전달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위드맘(청소년) 2천만 원 전달



행운권 추첨에서 대상을 받은 이슬기 성도



[사진 제공 : 박진서, 노주석]

신앙 간증

덕구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1년에 한 번 딱 이틀. 파워크리스찬 성극이 무대에 오른다. 단 두 번의 공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6개월 가까이 맘을 흘린다. 스텝들은 생업도 뒤로한 채 톱질, 못질, 페인트칠에 매달리고 먼지 가득한 작업장에서 밤을 지새운다. 그렇게 귀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 배우들은 야근과 학업에 시달리면서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연습실에 나온다.

텅 비어 있던 무대가 그렇게 채워지고, 이들의 공연을 마치고나면 스텝들과 배우들이 모두 함께 새벽 3~4시까지 조명을 내리고, 소품과 의상을 거두고, 공들여 만들었던 무대를 합판 하나 하나 각재 하나하나를 뜯고 부수어 치운다. 무대는 텅 비어 버린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벌써 8년째 파워크리스찬과 함께하며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땀과 노력이 오로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쌓여지며, 인간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 이번 <2019 빈방>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덕구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내가 연기했던 '정수진'은 거의 덕구를 경멸하는 수준이었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렇게 야멸차게 대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라는 생각에, 연습 초반엔 배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연습을 하며 내가 느낀 건 덕구를 배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날마다 죄를 쌓아가는 못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나는 덕구를 통해 머리로는 알고 있던 이 진리를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이틀만 만날 수 있었던 덕구를 통해 관객 중 누군가도 그랬으리라 믿는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텅 빈 무대가 가득차고 또 그 무대가 다시 깨끗이 비워지듯 나도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해 비워질 수 있길. 이성과 논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다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외쳤던 덕구처럼!



채정민 성도(청년부)

우리를 회복시킬 호렘산 기도회

- 목회현장 -



유제석 목사(광림남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보잘것없이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렘산에 올라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에게는 가슴 뛰는 소망이 있습니다. 벌써 서른한 번째, 매일 새벽 기도의 함성과 간절한 외침이 본당과 지성전을 가득 메워 왔습니다. 이제 우리 광림교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렘산이 될 것입니다.

하루는 생활에 치이고 몸이 불편하여 교회를 멀리했던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과 꽤 오랜 시간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호렘산 기도회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실 때 어느 권사님께 전도되어 호렘산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렘산에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이야기를 하며 눈물짓는 성도님께 다시 힘을 내시라 권면하였고,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호렘산에 올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이야기, 손 쓸 수 없던 질병이 치유된 이야기,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 등 다양한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호렘산 추억 노트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호렘산 40일의 여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호렘산 기도회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자리요, 혹은 눈물의 자리요, 혹은 치유와 회복,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호렘에 오르시겠습니까? 참된 소망으로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상처 난 마음을 싸매어 주소서.



뮤지컬 <가스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준비

- 광림남교회 -



뮤지컬 <가스펠>의 총연출을 맡아 진행한 광림남교회 교회합창입니다. 6년 전 이 뮤지컬의 주인공을 맡아 처음으로 예수님을 갠게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연의 연출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수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들도 없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걱정만 가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께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며 수락하였습니다. 3월 초, 처음에는 많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연습 계획을 잡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연극, 뮤지컬 같은 공연과는 연이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연습시간에 같이 있어 주며 대본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고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 힘들어할 때, 예전에 총연출을 맡았던 누나가 연습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찾아와 조언을 몇 마디 해주었습니다.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재밌게 연습하라고, 놀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도 함께 동화되어 재미와 감동을 느낄 것이라며 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팀의 연습은 정말 수월하게 재밌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힘들음 아시고 적당한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연습시간은 많

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대학교 시험 기간까지 겹치게 되어 연습이 힘들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여기저기 여러 목사님들께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굳게 믿은 채로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연습시간에 나와 계속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공연 전날까지도 완벽하게 완성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당일 부족한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재밌고 감동적인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총력전도주일에 새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고 그 사랑이 용인 지역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있을 교회와 청년부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하시어 저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김희찬 성도(광림남교회)

서울시 후원으로 사랑부의 발이 될 멋진 차량 구입



광림교회 사랑부는 28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드릴 독립적인 장소가 없었을 정도로 미약했지만, 지금은 매주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장애인 학생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만 사랑부는 이후 <방과후 이레센터>를 개원하였고,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하여 2005년 11월 <광림주간보호센터(개인운영시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장애인의 돌봄의 필요성으로 인해 2012년 10월 '사단법인 광림'을 설립하고 <예수와 주간보호센터>까지 개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림교회 사랑부는 주일에배를

통해 학생들을 영적으로 세우가는 것뿐만 아니라, 광림 예수와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시설을 개관을 했음에도 차량이 없어 여러모로 불편했던 예수와 주간보호센터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했던 예수와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입니다. 차량 구입 금액 중 약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되었고, 나머지 10%는 사단법인 광림의 지원을 받아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차량을 운행하기에 앞서 지난 5월 7일(화) 오전 10시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정준수 기획목사님을 비롯해, 예수와 주간보호 학생들과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운행을 당부하며 기도를 해주셨고, 그 후 그동안 도와주셨던 광림교회 사랑부와 관련된 분들과 함께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떡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와 주간보호센터 오병석 시설장은 "그동안 차량이 없어 사랑부 차량과 사단법인 광림의 배려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번 차량지원을 통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외부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주간보호센터는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욕구 및 필요에 맞는 활동 영역을 더 넓혀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앞으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예수와 주간보호센터가 될 것입니다.

김덕민 목사(사랑부)

[찾아가는 인터뷰 5회] 임시호 권사 (6교구)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

예배위원회 임시호 권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주님 섬기는 삶



주일이면 본당로비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낯익은 얼굴이 있다. 11년째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임시호 권사이다. 그가 특별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신앙간증을 들려주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불교 집안이었지만 아내(차선화 권사)의 결혼 조건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어서 1981년 광림교회에 등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호렙산, 트리니티, 속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벌써 30년이 넘게 참석해오

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호렙산 30년 개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작했지만 꾸준히 참여 하는 동안 저의 믿음도 같이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년간 교구장과 경조회장, 연합회장을 했고 지금은 예배위원회 총무와 남신교회총연합회 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무슨 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셨는지?

저는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좋아하던 운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적당한 취미생활을 찾다가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5일 동호 회원들과 함께 두물머리로 라이딩 후 귀가 중 남양주 미음나루 고개로 올라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깨어난 후 그 동안의 일어난 일에 대해 저를 구해준 포천소방서 119 소방응급대원으로부터 듣게 되었죠.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쓰러진 후 뒤에 오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할 때 바로 뒤에서 남자인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회를 보고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119구급대원이었고 휴일이라 라이딩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등 뒤에서 떠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빠르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세한 호흡으로 숨이 끊어져 가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며 119 구급차를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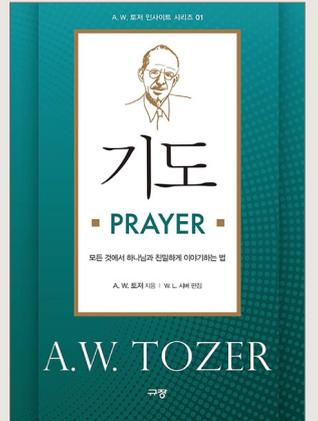
청했지만 인근 소방서 2곳의 구급차 모두 다른 곳으로 출동 중이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심정지가 왔고 생명이 위협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못 온다고 하던 구급차 2대가 기적같이 동시에 제가 쓰러진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2대 모두 호출했던 곳에서 취소가 되어 올 수 있었어요. 구급차에 있던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이 0.3%였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고 살았는데, 3개 심장혈관 중 2개가 막혀있었고, 1개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심장혈관수술도 받게 되었고요. 특별한 감사한 것은 광림의 교우들이 합심하여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새 생명 주시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하나님 일에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망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귀한 자녀로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의 신앙간증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믿음 없던 주위의 친구나 지인들이 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기도]

A.W. 토저 지음

A.W. 토저의 명설교 중에서 핵심 주제(기도, 예배, 제자도, 예수, 교회, 천국 시민)를 묶어서 모두 6권으로 출간될 예정인데, 이번에 출간된 [기도 PRAYER]는 인사이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누구보다도 강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저는 기도의 본질은 물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낳을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해나가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날카롭고 진지한 권면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은 토저의 글과 함께 '탐색하기'와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통해 토저의 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레셀 무어 지음

가족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상처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든든한 가족을 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한다. 건강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할 가족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끔찍한 가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받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악몽을 반복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족을 붙잡거나, 가족의 의무로부터 도망갈 길을 찾는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가족 관계와 책임의 총합으로만 보거나,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려 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을 향해 부르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연구원 02-2056-5730

유병권 기자 ybpower@empas.com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5월 26일, 영혼 구원의 목표 위해 평생 헌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는 82세가 될 때까지 지칠 줄 몰랐으며 영혼 구원의 목표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다

5월 26일은 영국과 전 세계에 구원의 횃불을 밝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회심 281주년 기념주일이다. 18세기 영국은 종교적으로 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쳐 생명력을 잃었고 음주, 방탕, 사치, 음란이 지배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도시의 1/4이 술집이었고, 밤에는 도시에 갱패들이 들끓어 밖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절망의 순간에 존 웨슬리는 “당신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복음에 목말라 있던 무리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웨슬리의 설교에 놀라게 반응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는 통회의 소리, 죄 사함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설교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시작한 감리교 운동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국 사회에 회개와 부

흥의 역사를 가져왔다. 존 웨슬리는 들판이나 공원, 잔디밭, 광산, 거리, 들, 시장 등 회중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설교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는 82세가 될 때까지 지칠 줄 몰랐으며 영혼 구원의 목표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임종 시 남긴 마지막 말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새겨져 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영적 거인이었으며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꾼 부흥의 주역이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선교와 전도에 있다”

<광림수도원 대성전>, 몽골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와 러시아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 건축



광림수도원 대성전



몽골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조감도



건축 중인 러시아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

선교주일, 국내외선교 위해 성도들 정성 모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자 교회의 사명이다. 광림의 성도들은 지난 19일(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고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정성어린 마음을 모았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하늘에 기록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생명력은 선교와 전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했다.

광림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앞장서 달려 나갔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 지난해 광림복교회(의정부)와 과훈광림교회(인제), 시영교회(미안마), 라이문교회(라오스)를 봉헌했으며, 지난 4월 열린 서울남연회에서 개척교회 설립 표창패를 받았다.

현재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와 몽골 광림어르비트 미션센터, 러시아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 건립 등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한국교회 영성을 위한 섬김의 장소

1988년 봉헌된 광림수도원은 지난 30년간 한국교회의 영성과 성숙을 위한 기도의 산실로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수도원의 여러 시설들의 노후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지난 4월 속소로 사용되는 살롬하우스를 먼저 리모델링해 봉헌하였다. 이어 지난 주부터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붉은 벽돌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를 3개 층으로 나누는 공사는 신축 이상으로 시공법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세미나실과 예배실을 만들고, 2층은 대예배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성전 내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현지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처소로 준비

몽골 울란바트로 어르비트 지역에 세워지는 <광림어르비트 미션센터>는 12년 전 세워진 개교회인 어르비트 광림교회가 발전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청년들이 모여 미션센터가 세워지길 기도해 왔으며, 최근 버려진 땅이었던 어르비트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미션센터를 세우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광림어르비트 미션센터>는 예배 장소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교육센터와 문화센터, 지역사회 봉사활동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지반공사를 마무리하고 1층 기둥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 완공이 목표다.

러시아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 5만명의 고려인들을 위한 목회자 양성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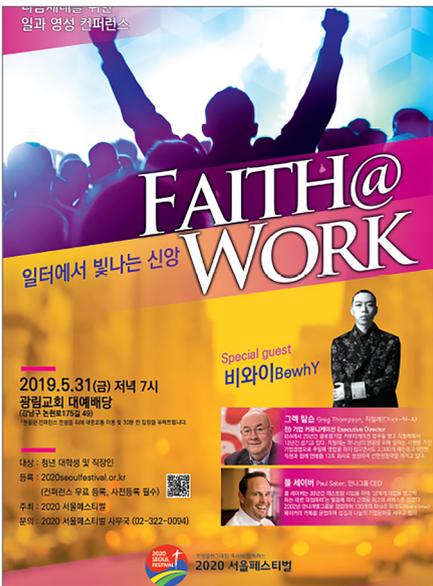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국경과 마주하며 일본과도 아주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지역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현재 한국에 사는 고려인은 약 5만 명에 이르며 자체적으로 고려인 교회를 세워 예배드리고 있지만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는 고려인들을 위한 교회와 러시아 목회자 교육기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림미션센터가 세워지면 목회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며,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 있는 고려인교회 목회자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3층 건물의 골조가 세워졌으며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2019 Faith @ Work> 일과 영성 컨퍼런스, 5월 31일~6월 1일 광림교회에서



<2020서울페스티벌>에 함께 할 한국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기 위해

<2019 Faith@Work>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5월 31일(금)~6월 1일(토)에 광림교회에서 열린다.

2020서울페스티벌 준비위원회의 일과영성위원회와 청년대학위원회 주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번 컨퍼런스는 'Faith@Work'라는 주제로 일과 신앙의 일치성을 통해 일터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다음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함이다.

생전에 빌리그래함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음세대의 위대한 운동은 일터의 성도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컨퍼런스 주 강사로는 미국에서 성경적인 기업 경영과 탁월함으로 2,300개 치킨전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치필레(Chick-fil-A)'의 경영진 그렉 탐슨(Greg Thompson)과 130개 '파네라 브래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만나그룹' 창립자 폴 세이버(Paul Saber)

를 초청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와 맥도널드와 같은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치필레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명을 가진 기업경영으로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8만여 명 직원과 함께 연매출 12조 회사로 성장하며 고객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치필레의 서비스정신으로 미소비자만족지표(ACSI)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객을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만나그룹 CEO 폴 세이버는 38년간 레스토랑 사업을 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에 따라 고객을 최고의 서비스로 섬겼다. 직원들을 존경하며 섬기면 직원들도 고객들에게 똑같이 대접하며 손님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한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옳은 길을 택하는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컨퍼런스 주강사들의 기업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세상 속에 복음의 선한영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한국교회 다음세대와 일터의 성도들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일과영성위원회 위원장 김운희 박사는 5월 8일(수)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서울페스티벌의 첫 시작을 일과영성위원회가 열게 되어서 기쁘고, 강사들의 힘들었던 인생 스토리와 믿음의 정체성이 청년들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5월 31일 저녁 7시에 청년대학생 위한 집회와 6월 1일 저녁 7시에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집회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자신의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인기 래퍼 비와이(BewhY)를 초대해 축제의 장을 열 예정이다.

박신애 기자 milkpsa123@naver.com